

‘VDT와 임신·출산’ 국내 첫 역학조사

“컴퓨터단말기 작업 자연유산과 거의 무관”

맹광호·이강숙 교수팀 사무직종 여직원 3백78명 대상

작업·비작업 ‘비교위험도’ 비슷...“안전성 단정은 못해”

컴퓨터단말기(VDT) 작업이 여성의 임신·출산에 해롭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에 관한 국내 첫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가톨릭대의 예방의학교실 맹광호·이강숙 교수팀은 지난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역학회 학술대회에서 “임신중 컴퓨터단말기 작업과 자연유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연유산 경험과 작업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무직 여성 2천2백여명 가운데 결혼하여 임신한 경험이 있는 3백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컴퓨터단말기 작업집단(68.5%)과 비컴퓨터작업집단(31.5%)의 자연유산 경험률이 각각 2.15%와 20.2%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비교될 만한 차이가 없었다.

또 비컴퓨터작업집단의 자연유산 경험을 1.00으로 했을 때 컴퓨터작업집단의 비교위험도가 1.09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가운데 주당 20시간 이상 작업집단의 자연유산 경험 위험은 1.14로 약간 높은 반면 20시간 이내 작업집단의 위험도는 0.89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 컴퓨터작업집단의 평균나이는 29.3살로 비작업집단의 31.5살보다 낮은 편이었고, 따라서 임신 경험도 비작업집단의 51.3%가 2회 이상인 데 비해 작업집단은 35.9%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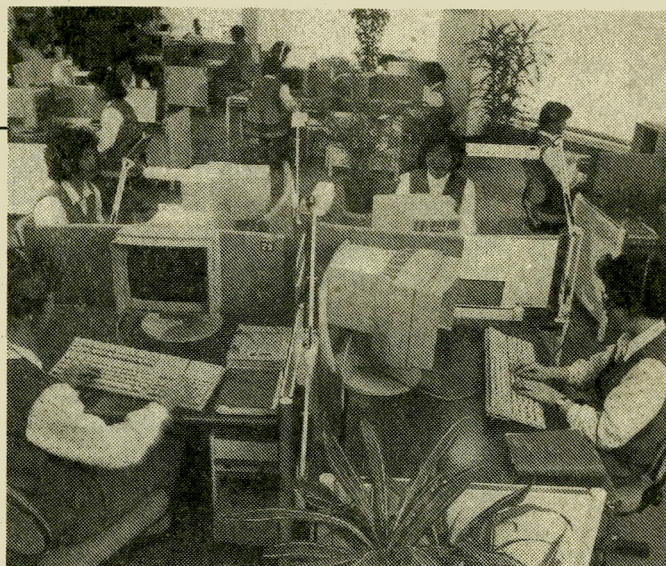
이들의 첫번째 자연유산 경험 나이도 작업집단 28.8살, 비작업집단이 28.6살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첫번째 임신이 자연유산된 경우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임신경험이 많을수록 유산율이 낮아져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했다.

이날 논문을 발표한 이강숙 교수(여의도 성모병원·산부의학)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자연유산에 대한 컴퓨터단말기 작업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라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 컴퓨터단말기가 보급된 지 얼마 안되고 첫번째 조사에 불과한 만큼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50년대초부터 컴퓨터단말기가 보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단말기에

서 나오는 전리방사선·자외선·X선 등의 생물학적 유해성을 둘러싸고 수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연유산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리 또는 마이크로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들은 고농도 피폭실험에서는 태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양은 아주 적어 직접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컴퓨터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여성이 크게 늘면서 임신·출산 유해성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컴퓨터단말기 작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없애줄 만

큼 확실한 연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국내 컴퓨터단말기 보급대수가 올 들어 2백만대를 넘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산직 여성근로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맹광호 교수(역학)는 “컴퓨터단말기 작업이 임신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험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비록 작업이 전기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도 인체공학적 요인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피폭자와 비피폭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가장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투자를 촉구했다.

〈김경애 기자〉